

'19세 철인' 김윤지 장애인 스포츠 '우뚝'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스프린트 좌식 '은메달' 지난 8일에는 한국 장애인 여자 선수 최초 '금'

'19세 철인' 김윤지(BDH파라스)의 거침없는 질주에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 새 역사가 쓰이고 있다.

김윤지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스프린트 좌식 결선에서 육사나 마스터스(미국)의 뒤를 이어 3분10초1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이미 한국 선수 동계 패럴림픽 역대 최고 성적인 2018년 평창 대회 신의현(금1·동1)의 기록을 넘어섰다. 경기를 마치고 환한 미소로 공동 취재구역(믹스트존)에 나타난 김

윤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오늘 경기장에 와주신 엄마, 아빠와 할머니, 동생이 '윤지 화이팅'을 외쳐주셨다"며 "연습할 때부터 여기 내 편이 있다는 생각에 든듯했고, 힘이 많이 났다"고 소리에 웃어보였다.

선전적 이분적추중 척수수막류를 안고 태어난 2006년생 김윤지는 여름에는 수영, 겨울에는 노르딕스키 선수로 활약하는 보기 드문 '철인'이다.

매 대회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아 해외 선수들 사이에서도 '스마일리(Smile)'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영락없는 10대 소녀지만, 기량은 독보적이다.



은메달을 들어보는 김윤지. 연합뉴스

김윤지는 패럴림픽에서만 통산 21개(금 11·은 7·동 3)의 메달을 딴 '살아있는 전설' 육사나 마스터스(미국)가 버티는 노르딕스키 무대에 혜성처럼 등장해 한국의 존재감을 각인했다.

앞서 지난 8일 바이에른 여자 개인 12.5km에서 마스터스를 제치고 한국 여자 선수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을 따냈던 김윤지는 이날도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했다.

준결선에서 마스터스보다 5초7 빠른 3분1초1을 기록하며 전체 1위로 결선에 진출한 김윤지의 기세는 결선에서도 거침없었다.

일찌감치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으나, 마지막 오르막 구간에서 마스터스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금까지 3번의 경기를 치러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김윤지는 다관왕도 유력하다.

김윤지는 "지금까지 해온 훈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온 대로 실수 없이 마무리하면 남은 3개의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며 웃어 보였다.



창던지기에서 한국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강별 선수. 제주장애인체육회 제공

제7회 전국장애인종별육상선수권대회 제주선수단, 금 5·은 2·동 1 획득

강별, 대회 '2관왕' 등극 쾌거 강현중도 육상 200·400m '금'

2024년 제주장애인체육대상을 수상한 강별이 올해 첫 한국신기록으로 2관왕에 오르며 제주선수단에 금메달을 선물했다.

제주 장애인육상 선수단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회 전국장애인종별육상선수권대회' 겸 제1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금 5개, 은 2개, 동 1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대회 첫날 강별(F37)은 육상 창던지기에서 19m31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강현중(T37)은 육상 400m에서 1분00초37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대회 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따냈다.

이와 함께 이동규(T37)가 육상 100m에서 13초89로 1위, 김진석(T37)이 800m에서 2분44초54로 1위

를 차지하며 제주 선수단의 선전을 이끌었다.

이동원(T20)은 100m에서 12초10으로 은메달, 벌리뛰기에서 5m10으로 동메달을 획득했고, 김진석(T37)은 400m에서 1분06초41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추가하며 제주 선수단의 메달 행진에 힘을 보탤다.

대회 2일 차 경기에서도 강별(F37)은 원반던지기에서 22m4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추가하며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고, 강현중(T37) 선수는 200m에서 25초75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또 한 번 정상에 올랐다.

제주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선수들이 동계훈련과 꾸준한 준비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 성과를 발판으로 올해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L AFC 손흥민 2026 시즌 7호 도움 챔피언스컵 16강 1차전... 팀은 1대 1로 비겨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뛰는 손흥민이 시즌 7호 도움을 올렸으나 로스앤젤레스 FC(LAFC)의 개막 이후 연속 행진은 중단됐다.

LAFC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LD 알라후엘렌세(코스타리카)와의 2026 북중미카리브해 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16강 1차전 홈 경기에서 1-1로 비졌다.

전반 44분 알레한드로 브란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후반 11분 손흥민의 도움으로 드니 부앙가가 동점 골을 뽑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날 무승부로 LAFC의 올 시즌 개막 이후 공식전 연속 행진은 5경기로 중단됐다.

안방에서 경기를 지배하고도 아쉬운 무승부를 거둔 LAFC는 오는 18일 열린 원정 2차전에서 8강행

티켓 획득에 도전한다.

이날 도움을 추가하면서 손흥민이 올 시즌 공식전 6경기를 뛰며 쌓은 공격포인트는 8개(1골 7도움)로 늘었다. 손흥민은 MLS 3경기에서 3도움을 올렸고, CONCACAF 챔피언스컵 3경기에서 1골 4도움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 18일 레알 에스파냐(온두라스)와의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 원정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시즌 마수걸이 득점을 올린 뒤로는 5경기 연속 골 맛을 못봤다.

이날 집중 견제에 시달린 손흥민은 전반에 세 차례 슈팅을 시도했으나 모두 수비벽에 막혔다.

전반 9분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오른발로 감아 찬 공은 수비수를 맞았고, 전반 26분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시도한 오른발 프리킥도 수비벽에 걸렸다. 이어 재차 시도한 왼발 눈스톱 슈트도 수비수에게 걸려 아쉬움을 삼켰다.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카리브해 축구연맹 챔피언스컵 16강 1차전에서 손흥민이 볼 경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여자축구 아시안컵 8강 상대는 우즈베키스탄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의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8강전 상대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결정됐다.

10일가지 호주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결과 A조 1위로 8강에 진출한 한국은 B조 3위에 오른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을 치르게 됐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8일 열린 A조 3차전에서 강호 호주와 3-3으로 비기며 2승 1무

(승점 7)를 기록, 조 1위로 조별리그를 마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12개국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1·2위와 3위 중 성적 상위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로 우승국을 가린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8강전은 한국시간 14일 오후 6시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최된다.

축득
CONGRATULATIONS

교육학 박사

고 동 국
(부: 고희배 · 모: 김영순)

교육학 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 일 동

왕방울 은행나무
성목 판매 (200년)

- 공원 조성용(열매 냄새 없음)
- 수령(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음)
- 재래종 보다 열매는 2배 큼
- 개량종(부채꼴, 대접꼴, 밥통꼴)

문의 : 010-4693-1698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크'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